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4년 주님의교회 표어



493
2024.12.1.

오늘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오늘의 주요 기사

- 2 유아숲 교재 개발
- 3 LAMS 소감
- 4 안수집사회 소식

- 4-5 호스피스 소식
- 6-8 임직자 소감
- 9 마더와이즈 소감

- 10 사임부임인사
- 10 청소년숲 수험생 위로
- 11 십자말풀이



누군가 그러더군요
도시의 야경이 멋있는 것은
퇴근하지 못한 직장인들의 야근때문이라고 ...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물을 드려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



유아숲

유아숲 교재의 여정, “성경워크북-말씀아이”가 되기까지

2023년 가을부터 유아숲 내의 교역자들과 함께 2024년부터 3년간 유아숲 커리큘럼을 개발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자체 교재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미취학부 아이들 연령대에 적합한 성경 이야기를 커리큘럼으로 세우고 이에 따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림체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접하고 싶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작가 섭외 후 시간도 비용도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림 의뢰 작업을 시작으로 첫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좋은 기독교인 그림 작가님을 만나, 그림 의뢰 비용 협의도 교회 예산 상황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여러 일정들 가운데에서도 교재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1 상반기 교재 제작 일정

원고 및 회의 일정	편집 디자인 및 인쇄 진행
교재회의(1) 커리큘럼 확정 (9/7)	말씀달력 디자인 시작-11월 3주
유아숲 교역자 말씀달력 원고 작성 시작 (9월)	컬러링북 디자인 시작-11월 3주
한 학기 그림의뢰(9월)	어린이교재 디자인 시작-12월 1주
어린이 주일 교재 기획 회의 11/2(토)	말씀달력 인쇄 진행 12월 2주 주간
작가 그림 마감 (11/15)	컬러링북 인쇄 진행, 12월 3주 주간
말씀달력 원고 마감 (11/15금) / 원고 발고 (11/17)	어린이교재 인쇄 진행 12월 3주 주간

■ 1월 첫 주 각 부서 배부

■ 25-1 커리큘럼

월	일	예배 및 평가	교육주제	본문 말씀
1	5	신년주일(16)	1단월 이 명예 오신 예수님(막 3:17)	
	12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막 3:14-17
	19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막 4:1-11
	26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요 11:1-44
	26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요 4:19-24
2	2		2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3	2		3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4	2		4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5	2		5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6	2		6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7	2		7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8	2		8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9	2		9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10	2		10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11	2		11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12	2		12단월 말례하시니 예수님(요 15:6)	
	9		창 모든 나뭇나무에 예수님	창 1:1-11
	16		바알과 바나를 만나게 하신 예수님	막 4:35-41
	23		종종영자를 고치신 예수님	막 2:1-12
	23		직접으로 친구가 되신 예수님	눅 10:1-19

현재는 전체 3년(6학기) 커리큘럼 중, 3학기 교재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25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교재 제작 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상 유아숲 교역자들은 한 학기 이상 앞서서 커리큘럼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커리큘럼이 확정되면 역할 분담을 통해 원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또한 커리큘럼에 따라 한 주의 주제 그림을 의뢰하여

여 교사와 부모가 사용하는 말씀달력 교재의 메인 그림으로 사용하며 주제 그림은 어린이 활동 교재에도 활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유아숲 어린이들이 한 학기 동안 주일 반별 활동 교재로 활용할 설교 후속 활동 교재를 기획합니다. 설교 스토리에 따라 어떻게 활동하면 메시지가 잘 새겨지고 아이들 입장에서 흥미롭게 활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교재는 부서 교역자들이 함께 기획한 대로 편집디자인되고 다양한 방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고 작성과 어린이 활동 교재 기획 회의를 마치면 의뢰한 그림들이 도착하는 대로 편집 디자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책 편집 프로그램인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어도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주 업체 의뢰 없이 유아숲 자체로 편집디자인을 진행하여 개발합니다. 말씀달력-컬러링북-어린이활동 교재가 완성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인쇄소에 완성 파일을 넘기고 인쇄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 성을 다해 제작된 유아숲 교재에 대한 올 한 해의 현장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담임선생님, 부장단, 부모님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들의 흥미진진한 반응이 이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완성된 교재를 보며 여러 교회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아숲 어린이들이 사용할 몇 권의 여분 말고는 추가적으로 인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아쉬워하고 있던 때에, 교단 출판사인 한국장로교출판사로부터 좋은 제의가 있었습니다. 유아숲 홈페이지(pclkids.co.kr)를 통해 유아숲 제작 교재들을 살펴본 결과 정식 출판을 하여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사용하는 교재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의였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정성과 노력의 좋은 결과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서 다양하게 (어린이 제자학교 프로그램, 아기학교, 주일 보조교재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재 편집된 교재를 한국장로교출판사를 통해 11월 말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숲 내의 교재 인쇄 형태와는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편집하여 시리즈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 (52주) 교재 안에서 구약(1)(2), 신약(1)(2) 이렇게 네 개의 시리즈물이 발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2024년 커리큘럼 안에서 발행될 교재의 내용입니다. (한국장로교출판사 등 인터넷 서점에서 11월 27일부터 공식 판매가 시작됩니다.)



말씀아이 신·구약 커리큘럼			
구약		신약	
구약 1		구약 2	
1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3과 사탄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3과 사탄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3과 사탄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4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4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4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3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5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5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5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4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6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6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6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5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7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7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7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8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8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8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7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9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9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9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8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0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0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0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9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1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1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1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0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2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2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2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1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3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3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3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12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4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4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4과 아담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신약		신약	
신약 1		신약 2	
1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3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3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3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4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4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4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3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5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5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5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4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6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6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6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5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7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7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7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6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8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8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8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7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9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9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9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8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0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0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0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9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1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1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1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0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2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2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2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1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3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3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3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12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4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4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24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앞으로도 유아숲 교재 제작은 4학기 동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의교회 유아숲 내에서는 기존 24년 교재의 형태대로(아래의 사진 참고) 계속해서 부모-지도

자용 교재인 '들려주세요, 말씀!' 말씀달력과 어린이 주일 활동 교재, 컬러링북이 제작될 예정이며, 유아숲 모든 커리큘럼에 대해 한국장로교출판사와 함께 성경 워크북 말씀아이를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쁨으로 해낸 유아숲 교재 개발의 일들이 더 넓고 깊게 쓰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아숲 3년 커리큘럼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양육과정
LAMS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한다. LAMS (Life As Mission School)에서 던지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지?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속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구속의 규모와 범위는 얼마만 한지? 우리의 존재와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다.

가을학기예 함께한 LAMS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내는지 나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되짚어보는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선교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쾌하고, 새롭고, 참신하게 풀어주어 매주 기대하며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다.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지금까지 선교는 열방을 향해 가서 그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현장으로 보내진 자와 보내진 그들이 낯선 문화와 어려운 장벽들을 잘 이겨내고 복음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자가 있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라는 정도의 좁은 시야로 생각했다면 이제 선교는 세계 모든 지역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정치, 사회, 환경, 교육, 직장, 학교, 가정 등 모든 피조세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선교인 것이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선교이며 선교적 시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는 결국 하나님

의 목적에 동참하였는가를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이 선교인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LAMS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가 많이 결부되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연합하며 중보함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열망이며 사명인 것처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DNA(말씀, 사랑, 공의, 영광, 생명, 은혜, 긍휼, 진리, 선하심, 빛, 거룩, 지혜, 권능 등)를 장착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삶을 살도록 섬기고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교가 복되고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라면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나”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돕고 안내하는 복되고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LAMS에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해본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

장혜정 권사 / 6교구

양육과정
LAMS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LAMS!

무엇보다 먼저 저를 LAMS과정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신청할 때쯤 가까운 분이 돌아가셔서 생명이 소멸해가는 과정과 죽음을 눈앞에서 직면하고 삶이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 나의 실존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Mission이라는 단어 자체를 해외 선교와 해외 선교사에 국한해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LAMS에 대해서도 막연히 선교와 관련된 뭔가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LAMS = Life As Mission School 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선교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The Mission of God's People)」(저자 : Christopher J.H. Wright) 라는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데 매주 강의 전에 해당하는 과를 미리 예습으로 읽어 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소 어려운 책 내용이지만 교재를 미리 읽고 강의 시간에 임하니 강의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던지시는 한 마디, 한 구절에 ‘짱’하는 찔림을 느낄 수 있어서 훨씬 더 큰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보충해주는 work book도 따로 제공해 주셔서 책 읽기 예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통 설교나 양육들이 신약을 많이 다루다 보니 구약에는 익숙하지 못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구약을 연구한 학자라서 구약-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신약으로 이어 풀어 놓아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나라는 존재 자체가 창조 되어진 까닭은 “아버지께

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한복음 20:21)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며 그것은, 각자의 삶의 영역인 가정, 직장, 교회, 이웃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소금)으로서 또 거룩(빛)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거룩하게 사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꼈으며, 수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애써야만 가능한 성품의 어떤 경지라고 생각했으나 거룩은 ‘다르거나 구별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삶의 현장에서 다르게 구별되게 행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 LAMS에 중요한 과정이 조별 나눔 시간입니다. 강의 시간만큼 나눔 시간이 길게 주어지는 데 그만큼 나눔을 특별히 간주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성별을 섞어서 조를 편성해 주셔서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삶과 믿음의 연륜이 풍부하고 깊으신 장로님, 저보다 어리셔서 파릇한 관점을 지닌 집사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었고 함께 나눠 주신 조원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수업 전에 기도회와 찬양으로 섬겨주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청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의 전 한 주 동안 세상에 지친 허탈한 마음을 갖고 기도회 앉아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사르르 녹으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저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까운 LAMS 과정이 주님의교회의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확산되어 퍼지기를 바라며, 모두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종경 집사 / 3교구

안수집사회

피택 안수집사 간담회 및 정기총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수집사회에서는 11월 22일과 23일에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2024년 피택자 수련회에 방문하였다. 안수집사회 임정식 회장, 구태호 직전회장, 박준명 차기회장과 24년 피택 안수집사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비록 주어진 시간이 짧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은퇴 안수집사들이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이 피택 안수집사들과 만남이었다. 앞으로도 안수집사회에서 피택 수련회에 참석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안수집사회 임원들은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여 1인 1사역 이상 헌신해 달라는 주문과 교회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2024년 안수집사회 마지막 행사로 12월 15일 오후 2시 안수집사회 정기총회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시니어 성도를 위한 김은선 목사의 강해가 예정되어 있다. 2024년을 보내는 귀한 시간에 안수집사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참석을 바란다.

함글함글

호스피스 실습 후기

아로마향이 전해 준 감사

호스피스 교육 11주 차에 현장 실습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날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2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 ‘샘물호스피스’. 오늘의 실습은 대상자분들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봉사를 함께하시는 분들과 한 조를 이루어 주의 사항을 듣고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마주한 대상자분들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더 깊은 생각과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증 속에서 신음하며 지내실 것이라 상상했던 병실은 오히려 고요하고 평안함이 감돌았습니다. 통증의 고통을 견디며 담담히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과 애써 아픈 마음을 다독이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서 돕는 요양보호사와 의료진의 따뜻한 손길을 보며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로마 오일 마사지, 각기 다른 향으로 전해지는 감정

호스피스 병실로 이동하여 대상자분의 발을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해 드릴 때, 은은하게 퍼져 나오는 8가지 블렌딩의 아로마 향은 긴장했던 저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향을 맡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따뜻함과 안도감이 그분과 보호자에게도 같은 의미로 전해질까? 향이 참 좋구나~로만 느껴왔던 오일의 향은 오늘은 유난히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고, 대상자들에게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서서히 퍼지는 아로마향을 느끼며, 그 순간의 따뜻함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생소함을 넘어, 처음 만져본 타인의 발

이번 실습에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대상자분의 발을 만지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의 발을 만져본 경험이 없었던 저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의 감각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수분기 없이 메마르고 야위어진 발을 만질 때마다, 그 발이 걸어온 고된 여정이 느껴졌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 마음이 북받쳤고,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 그들의 고통과 지금 이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감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넘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대상자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가져오셔서 하세요.” “더우실 것 같아 선풍기

를 틀어놔어요.”라는 배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호강하네요!”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몽클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병의 원인을 알았다며 후회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씀을 들을 땐,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빛깔로 다가온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실습생들의 나눔과 환자분들의 따스한 가을

실습이 끝난 뒤, 기존 봉사자들과 실습생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보았던 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절편과 잘 익은 감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짧은 나눔의 시간이었지만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며,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며 이 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복도 한 칸에 걸린 글귀, 다시 한 번 떠올려보다

호스피스 병원 복도 벽면에는 사색할 수 있는 액자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내 마음을 끌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게 호흡이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중략)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 감사해요” 한동안 액자를 바라보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글귀에 내 생각은 멈추었으며, 제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족, 건강,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임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저는 호스피스가 단순한 봉사나 돌봄의 역할을 넘어서, 삶과 죽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느끼는 겸손과 감사함을 배우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흘러보냈던 일상의 순간들이 다시금 소중하게 느껴졌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네는 대상자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 또한 진심 어린 배려와 돌봄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최민기 집사 / 2교구



베트남 호스피스
선교 후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베트남 호스피스 선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호스피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3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며 환자를 대하는 것이 점차 힘들어지던 시기에 호스피스 의료 선교를 가게 되어서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소진되고 오는 건 아닐지 염려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더 많이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베트남 CMF(Christian Medical Fellowship)의 한 치과의사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나라여서 학교 곳곳에 공관들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라서 규제와 감시가 덜하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사사건건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감내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과연 내게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경험이 있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입술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스프링 호스피스팀'과 함께 아침 큐티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병원으로부터 외면 받는 말기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상태를 살펴보고, 위로하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트남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손을 꼭 잡고 계신 모습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기 힘들어하던 시기였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_마 25:40

예수님께 하듯 매 순간 섬김으로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뇌리에,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구나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의 감정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자를 대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베트남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선교 일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진료를 보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치과 진료, 내과 진료,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즈음 진료를 보셨던 한 분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슬퍼하시는 줄 알았는데 호스피스팀이 전하는 사랑에 깊이 감명 받으셔서 눈물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

칠이 지나고 아주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때 검진 받았던 세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살아온 적이 없어서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지 몰랐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곳을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내 것을 내어 놓을 때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전하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 것을 주께 내어 놓을 때 주께서 보여주실 것들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는 모습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홍유선 자매의 간증과 함께 준비했던 특송에 마음을 다해 화답해주시는 모습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였습니다.



이번 호스피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일터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으며, 베트남 땅의 복음화와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때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과 더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트남 땅과 스프링 호스피스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은 청년 / 청년부

이런 임직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실시된 2024 항존직 선거를 통해 장로 2인, 안수집사 12인, 권사 17인이 피택되었고 6개월간의 피택자 교육 과정을 마치고 2024년 12월 1일 3부 예배 시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피택자 교육 과정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통해 항존직 여러분을 소개합니다.(가나다 순) **함글함글**

■ 장로



최성이 장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맡겨주신 소명, 청지기 의식을 갖고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낮은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며,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이미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저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최영인 장로

주님의교회 92년에 등록하여 청년 시절, 결혼, 아이 3명을 낳아 기르고 중년을 지나 장년의 길목에서 8번 과정을 거쳐 9번째 만에 장로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또 한 번 겪은 건강의 위협과 피택 이후 감당키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하며, 10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안수집사



김광수 안수집사

나 하나 변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그렇기에 때론 변화되기를,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을 주저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빚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 하나일뿐이라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김성배 안수집사

피택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거 같은데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마지막 1박 2일 수련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직장의 형편상 과연 교육을 받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당도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직받고 임직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성우 안수집사

임직의 기쁨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피택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나는 습관을 얻은 것입니다. 훈련한 QT 습관을 생명의 시간으로 알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저를 사용하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김성흠 안수집사

6개월간 이어진 성경통독과 큐티나눔, 목사님의 강론, 친교의 교육과정은 하루하루 성령 충만과 영적 축복을 받도록 하였고 앞으로 지속할 신앙생활의 일상들이 되고 거듭 새 영으로 발돋움해서 신앙성숙을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신실한 교우들과의 신앙교류와 기쁨은 홀로보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박재원 안수집사

박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박사지만 집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박사는 타이틀이지만 집사는 직분이고 직분은 곧 일이기 때문에 이번 6개월간의 피택자 교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기쁨, 귀한 경험으로 내게 주신 가정과 주님의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글함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고 나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종수 안수집사

부족한 저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에서 해야 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 섬김과 봉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맡게 될 사역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할 용기도 얻었습니다. 겸손하게 교역자들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임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범석 안수집사

먼저 피택교육동안 수고하시고 도와주신 담임목사님,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이하 여러 임직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감상은 신앙인으로서의 지내왔던 시간의 어떠한 매듭을 짓고 묵상케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태도와 경청'이라는 덕목을 일깨워 준 교육으로써 교회 안에서 일상 속에서 중요한 말씀과 자세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임성수 안수집사

믿음에 부족하고, 삶에 허물이 많은 저를 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내에서, 가정 및 직장 사자들을 접하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시는 지상명령을 준행하고자 애쓰겠습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임채홍 안수집사

목상나눔과 리더십 교육은 주의 말씀에서 삶의 지혜와 믿음의 은혜를 살피보는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찾고, 주께 대한 섬김과 순종으로 그의 뜻을 분별하며, 주께 대한 경외심으로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진실된 기도와 충성된 마음을 사용하여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참된 성도의 거룩한 사명과 영혼을 배우는 과정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기옥 안수집사

하나님께서 저를 임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원함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훈련기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께 부르심을 소망하며 섬기는 자리로 임하도록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조민호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문을 들어서는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소중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물론 좋은 믿음의 영적 형제분들을 만난 것도 첫사랑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나의 첫사랑의 성경구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황광수 안수집사

주님의교회에서의 피택교육과정을 통해 담임목사와 섬김이분들의 신실한 목회 심정을 깊이 느끼고 본받음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선한 정신을 따르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하는 봉사의 정신과 행할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됨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주님의교회의 작은 밑일이 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영적 강건함을 매일 유지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장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목자의 역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 역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2-3

안수집사 (봉사의 실천적 사역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23-24



권사



김경주 권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고 있는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는 귀하고 특별한 교육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에 늘 감사하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김경혜 권사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응답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능력과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미선 권사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교회가 복된 소식을 온전히 전하는, 바르고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성장하도록 기쁘고 겸손하게 받은 사명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김성경 권사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며 연합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QT 묵상, 성경 통독, 신앙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충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겸손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순 권사

지금까지 저를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권사로 피택되어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아버지나라의 일꾼으로 본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김현미 권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2:15) 어와나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외웠던 말씀인데 임직식을 앞둔 오늘, 자꾸 되뇌이게 됩니다. 주님 일꾼으로 부르시고 훈련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여정 되길 소망해봅니다.



박성연 권사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6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흠 많고 보잘 것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리더의 훈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과정이 마치기까지 섬겨주신 여러 직분자들의 헌신에도 깊이 감사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낮아짐의 의미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임직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권사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말씀과 큐티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항상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실 때는 더욱 주님께 순종하라는 뜻으로 알고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정 권사

귀한 직분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을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임직자가 되고자 합니다.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권사로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삶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소자 권사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의 부족함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직분을 잘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제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제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사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유윤정 권사

소문으로 듣고 늘 궁금했던 피택자 교육...기대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매시간 가득했지만, 6개월 동안 매일의 큐티와 통독이 쉽진 않았습니다. 진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남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내려 애쓰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해 봅니다.



이양진 권사

주님은 언제나 부족함없이 저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장경희 권사

부족한 저를 직분자로 택하여 주셔서 6개월간 훈련시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뽕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20:35>는 말씀처럼 약한 자를 돕고 받는 것보다 나누고 베풀며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차정숙 권사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저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성실하고 겸손하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어 여겨 주셔서 맡기신 직분임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며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탁윤주 권사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된 6개월간의 피택교육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 새겨져 온전히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나라와 주님의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계옥 권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길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오직 주님만이 작은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중 교회 공동체 어느 곳에서도 바른 마음으로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순종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홍정미 권사

피택 교육 과정을 통하여 임직의 중요성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과 이웃에게 나누고 헌신하는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매일의 큐티와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믿음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권사 (교회의 중보자와 돌봄의 사역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11-13

마더와이즈
동행편 소감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지팡이입니다. 늘 항상 내 옆에 있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인생길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는 주님은 나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나의 나침판입니다. 늘 내가 길을 잃고 광야를 헤맬까 인생 방향을 가르쳐 주는 주님은 나의 나침판입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늘 남을 의식하며 겉으로는 있어 보이려 물 위에선 하염없이 우아하지만 물 밑에선 가라앉을까 늘 두려워하는 나는 백조입니다.

작년 친정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저는 무조건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주님의교회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신 이웃분의 얘기를 듣고 주님의교회에 등록하고 세례까지 일 년 안의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우연히 인생의 거울을 준비하라고 마더와이즈<동행>을 만났습니다. 열두 달 중 11월은 가을도 겨울도 아닌 그 어딘가의 계절 하루하루 밤이 깊어지는 이때가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지까지 버티면 된다. 동지만 지나면 조금씩 해가 길어진다” 그 말에 사고의 전환, 서로 나눔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40대 중반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 점

점 나의 손길이 필요 없어지고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져 갔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 여기는 무기력에서 앞으로 이런 생활을 살아온 것만큼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퍽퍽한 터널을 걷는 거 같았습니다. 식구들이 아침에 모두 나간 후 텅 빈 집에서 다시 침대에 누워 그저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재직했었습니다. 큰 딸 채영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직장 생활을 했던 삼 년이 그저 미안하고 죄송하고 전업주부가 마냥 부러웠습니다. 둘째 서영이가 나에게 왔을 때 차 안에서 평평 울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저것이 부럽고 저것을 또 다른 것이 부러워지는 저의 마음입니다.

이제 저는 평생 주님 옆에 언제나 늘 붙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의지력이나 실행력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유의지, 선택의 기회만 주신 하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이 하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김범선 성도 / 5교구



마더와이즈
동행편 소감

주님과 함께

올해 5살 된 딸을 키우면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종종 자주 들었습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 자유편, 동행편을 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하는 마더와이즈는 ‘저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어떤 모습의 부모가 되어야 할지, 이럴 땐 어떻게 저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작은 문제들조차도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유편을 통해서 저의 쓴 뿌리들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동행편에서는 잠언 말씀을 토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리도 나에게 꼭 맞는 순서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 감격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동행편을 통해 굳게 다짐한 것 한 가지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귀한 기업으로 삼고 기도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잠잠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친히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유선 성도 / 8교구



사임인사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주님의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섬겼던 이충만 목사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순간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섬겼어야 했지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주님의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떠납니다. 아쉬움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사랑을 기억하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부족함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모퉁잇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저가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만 목사 / 청년부



부임인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전임전도사로 섬기게 된 김세연 전도사입니다. 2009년 어와나 트랙 교사로 시작된 주님의교회와의 인연이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어찌 쓰시려고 이 귀한 사역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사역자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연 전도사 / 청년부



청소년
수험생 위로

수험생 위로·격려 카페, '전부주막'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11월 14일(목)에 주님의교회 김마리아회관 1층 실만한 물가에서 수험생 위로·격려 카페가 열렸습니다. 올해의 전부주막의 컨셉은 미리 크리스마스로 성탄을 기뻐하는 트리와 각종 장식품으로 실내를 꾸몄습니다. 아이들은 한껏 가볍고, 기쁜 표정으로 카페를 방문했는데요. 그 표정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수능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까?’라는 마음에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새우와 마늘을 주재료로 한 스페인 요리인 감바스와 수제 망고 푸딩을 필두로 떡볶이, 어묵, 순대, 김말이, 군만두, 닭강정, 각종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입시 결과에 대한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맛있는 음식

을 먹으며, 같이 웃고 떠들며 쉼과 위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이 삶의 목표인 대한민국의 입시 체제 속에서 아이들은 극도의 경쟁 속에 내몰립니다. 성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라는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과 활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입시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수험생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와 가족이 알고,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귀한 아이들이 자신의 고유한 삶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계원 목사 / 고등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스바냐 편

이번 호는 <스바냐> 편입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서로 전해집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경고하며 여호와와 뜻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92호 '하박국' 편 정답



가로 힌트

- 어떤 민족에 속하지 않은 사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가리켰다. (습 2:11)
- 썰모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남은 것. 국물 속에 있던, 더 썰모가 없어 버리게 되는 작은 조각들도 이렇게 부른다. (습 1:12)
- 떼를 지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것.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하며". (습 2:9)
- 굳세고 단단함. 물리적인 성질에서 유래하여 신념이나 사상이 이런 경우에도 쓰인다. (습 1:16)
- 요시아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왕족이었으며, 유대 지도자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여호와와 뜻을 전했다. (습 1:1)
- 역사적 시간의 큰 단위. "삼국○○"와 같이 쓴다. (습 1:1)
- 남유다의 13대 왕. 아하스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아버지였다. (습 1:1)
- 의로우심으로. '의롭기 때문에'를 높여 부르는 옛 말투이다. (습 3:5)
-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이의 국경 지대에 있었다. (습 2:4)
-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춘. 대개 높은 사람에게 저자세로 아침하는 것을 말한다. (습 3:4)
-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의 덩어리. 높이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종류가 있다. (습 1:15)
- 히스기야의 아들. 스바냐의 증조부이다. (습 1:1)
- 룻과 돌씨 딸 사이에 낳은 아들. '벤암미' 라고도 한다. (습 2:8)
-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도시. 여호수아 시대에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던 땅으로,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습 2:4)

세로 힌트

- 어떤 한 지역의 지도자. 느헤미야도 이 호칭으로 불렸다. (습 3:3)
- 분개하여 성을 냄. 몹시 성을 내는 것을 뜻한다. (습 1:15)
-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 주로 성경에서 쓰이는 말이다. (습 2:9)
- 예루살렘 서쪽의 둘째 구역. 은세공업이나 상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다. (습 1:11)
- 아픈 통증. 주로 육체적인 괴로움을 의미하지만, 정신적인 것을 뜻하기도 한다. (습 1:15)
- 남유다의 16번째 왕. 아버지 아몬과 어머니 여디다 사이에 태어났다. (습 1:1)
-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 삼손이 블레셋 주민을 죽인 곳으로, 헤롯의 고향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습 2:7)
-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 지금의 가자 지구에 있던 오랜 도시이다. (습 2:4)
- 다른 누군가에게 몸이나 마음을 의지함.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습 3:12)
- 주로 가축과 같은 동물을 가두기 위해 치는 담장. 한국에는 이런 이름의 은행도 있다. (습 2:6)
-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습 3:4)
- 유다의 총독. '여호와와 크시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달랴'라고도 한다. (습 1:1)
-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 부르는 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것을 남긴다고 한다. (습 3:9)
- 어떤 공간을 구획하여 나눈 지역. 교회 소모임 여러 개를 모아 이것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습 1:10)
- 남유다의 제15대 왕. 히스기야의 손자요, 아버지 므낫세와 므술레멧 사이의 아들이다. (습 1:1)
- 구약에서 황폐한 지역에 사는 새를 부르는 이름. 현대어 성경에서는 펠리칸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습 2:14)

제5회

함	즐	함	울				
신	춘	문	예	공	모		

● 공모 부문

- 시 | 3편
- 수필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 간증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 접수 마감

2024.12.20(금) 24:00

●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5년 함즐함울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

● 보낼 곳

- pclhamletter@naver.com

메일 제목에 <함즐함울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아래야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각 부문 별 최소 응모 편수 이상을 보내주셔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이전에 함즐함울 신춘문예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 대상 및 최소 응모 편수에서 제외합니다.

함즐함울에서 제5회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문해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짧고 강한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긴 글을 읽고 내 생각을 쓰는 것에서 점차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실천할 지 고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고 생각하는 힘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함즐함울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덕목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주님의교회

교회일정

12/1 (주일)	대림절1, 임직식(3부 예배)
12/4 (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5교구)
12/8 (주일)	대림절2
12/14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12/15 (주일)	대림절3

알립니다

1. 제5회 함즐함울 신춘문예 공모

부문 : 시(3편), 수필(2편 이상), 간증(2편 이상)

접수 : 이메일 접수 pclhamletter@naver.com

(메일 제목 : '함즐함울 신춘문예 응모작품' 기입)

마감 : 12/20(금) 24:00까지

문의 : 어진원 안수집사(010.2951.4487)

* 포스터 게시물 참고

2. 유아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세례교인의 24개월 미만 아기

신청 : 12/14(토)까지

교육 : 12/15, 22(주일) 오후 2:30(중 온라인)

유아세례예식 : 성탄절(12/25) 2부 예배시

문의 : 오광순 안수집사(010.3351.9471)

3. 2005 선교 결연 약정

하나님의 선교, 가정이 중심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을 연결하는 선교 결연 (재)약정을 진행합니다.

일시 : 12/1(주일) 오전 8:00~오후 2:00, 1층 로비

※ 11/30(토) 전송 문자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
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